

백신도 없는데 어쩌나...코로나 재유행에 '긴장'

SOCIETY

2025년 9월 3일 수요일

8주 연속 입원환자·바이러스 검출률 급증세

내달부터 백신 수급...한달여 간 공백 불가피

광주·전남 지역사회에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역 내 보건소 백신 재고가 모두 소진됐기 때문이다.

향후 백신공급은 오는 10월15일부터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개인 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4주차(8월 17~23일) 기준 전국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221곳의 코로나19 입원환자

는 36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6주차(6월 22~28일) 63명 이후 8주 연속 증가세다. 세부적으로 27주 101명, 28주 103명, 29주 123명, 30주 139명, 31주 220명, 32주 272명, 33주 302명 등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도 27주차 6.5%에서 34주차 32.6%로 폭증했다.

또 올해 누적(34주차 기준) 연령별 입원환자 현황은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

자(4467명)의 60.2%(2689명)로 가장 많고, 50~64세가 18.2%(813명), 19~49세가 10.3%(461명) 순이었다.

광주 코로나19 표본감시기관 입원환자도 급증했다. 26주(6월 22~28일) 0명에서 32주(8월 3~9일) 18명으로 크게 늘었다.

7~8월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평균 18.5%로, 지난 5~6월 3.7%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주요 감염병 병원체 감시 결과에서도 7~8월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가 5~6월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이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65세 이상 고령층 등 면역 저하자의

경우 체내 면역 형성이 쉽지 않아 추가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문제는 개혁을 맞아 무더위 속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지만, 광주 5개 자치구 보건소(지정 의료기관)가 보유한 백신이 '제로'라는 점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6월 말 2024~2025절기 접종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일선 보건소에서는 백신 재고가 없어 하루 평균 100여명에 이르는 접종을 인원을 모두 돌려보내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백신 공백 상태는 한 달여 간 이어질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이 오는 10월부터 2025~

2026절기 새 백신을 공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이 계약한 새 절기 백신은 화이자 328만회분, 모더나 202만회분으로 총 530만회분이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오는 10월에 시작되는 2025~2026절기 접종 사업에 맞춰 백신 수급을 진행할 방침이다"며 "코로나19 감염 시 증상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고령층의 어르신이나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참여를 자제하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주·전남서 PM 교통사고 매년 150여건

〈개인형 이동장치〉

최근 3년간 총 443건 발생...사망 4명·부상 496명

광주·전남지역에서 연평균 150여건에 이르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건수는 총 443건(광주 279건·전남 164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170건(광주 92건·전남 78건), 2023년 144건(광주 111건·전남 33건), 지난해 129건(광주 76건·전남 53건) 등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반복되는 PM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같은 기간 496명(광주 307명·전남 189명)이 PM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고, 4명(광주 1명·전남 3명)은 목숨을 잃었다.

전국적으로도 매년 2400여건의 PM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22년 2386건, 2023년 2389건, 지난해 2232건으로 최근 3년간 총 700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7865명의 사상자(부

상 7792명, 사망 73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PM 교통사고 건수는 2022년 1127건에서 2023년 1148건, 지난해 116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PM 교통사고의 절반 수준(49%)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운전자를 연령대별로는 15세 이하 1441명, 16세~19세 1648명, 20대 1783명, 30대 790명, 40대 524명, 50대 414명, 60대 201명, 70세 이상 168명, 불명 78명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의 44%가 19세 이하 청소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의 면허검증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정현 의원은 "자유업에 속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는 지자체에 별도의 신고나 등록이 필요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며 "관련 사고의 절반 가량이 무면허 사고인 만큼 업체의 면허검증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말다툼 중 화김에 흥기 위험한 20대 붙잡혀

말다툼을 하다 화김에 흥기를 꺼내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광주 서부경찰은 2일 흥기로 타인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남성 A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5분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거리에서 B씨(19)에게 흥기를 들고 위협하며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행히 A씨

의 위협 행동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지인이 B씨 일행에 폭행을 당하자,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서도 A씨는 "B씨 등과 말다툼 과정에서 반말을 해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용성 기자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실천 다짐 2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본관 1층 현관에서 열린 '2025년 양성평등 주간' 행사에 참여한 이점선 광주시교육감과 직원들이 양성평등 다짐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최기환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전남 여성긴급전화 상담·스토킹 증가세

최근 3년간 6만9211건·2057건...구속 46건 불과 평균 처리기간 최대 13일...“예방대책 마련 절실”

광주·전남 지역에서 여성긴급전화 1366 피해 상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스톱킹 범죄도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여성긴급전화1366 피해상담자료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광주·전남지역 상담 건수는 총 6만9211건이었다.

연도별로 2022년 2만2118건(광주 1만 1872건·전남 1만246건), 2023년 2만 2946건(광주 1만1522건·전남 1만1424건), 지난해 2만4147건(광주 1만2595건·전남 1만1552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스톱킹 범죄도 증가 추세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광주·전남의 스톱킹 범죄 검거는 2057건이다. 연도

별로 2022년 572건(광주 246건, 전남 326건), 2023년 676건(광주 278건·전남 398건), 2024년 809건(광주 328건·전남 481건)으로 확인됐다.

스토킹 범죄 검거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지만, 구속 건수는 상대적으로 낮다.

같은 기간 스톱킹 범죄 관련 구속 건수는 총 46건으로, 2022년 8건(광주 4건·전남 4건), 2023년 13건(광주 8건·전남 5건), 2024년 25건(광주 13건·전남 12건)에 불과했다.

1개월 이내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는 잠정조치 4호 건수는 3년간 72건(광주 18건·전남 54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잠정조치 4호(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잠정조치 3호)에 나서고 있지만 스톱킹 범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광주지검은 주거침입 강간, 스톱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연인 관계였던 B씨의 집에 수시로 침입하고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B씨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토킹 범죄 특성상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청 조사 결과 잠정조치 평균 처리 기간(2025년 6월 기준)은 1.9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건의 경우 자체조사 등으로 13일이 지나는 경우도 있어 예방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은 "스토킹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제도 개선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며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오늘의 날씨

예보 06:06
예보 18:57
날씨 16:16
날씨 00:48



광주	21~32
서울	23~32
대전	22~32
대구	23~31
부산	25~31
제주	27~32
강릉	22~31
청주	23~32
포항	24~29
목포	24~32
여수	25~30
순천	24~32
구례	23~32
광주	23~32
임도	24~32
흑산도	25~30
고흥	23~32
진도	23~32

목포	미물(고)	09:33 / 23:11
	셀물(저)	04:58 / 15:52
여수	미물(고)	05:34 / 19:05
	셀물(저)	00:47 / 11:32

행복센터서 만취소란 60대 체포

만년필 ○...만취 상태로 등 행정복지센터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

2일 광주 서부경찰은 술에 취해 등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욕설을 하며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 40분께 광주 서구의 한 등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50대 여직원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민원 가림막을 수회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아.

또 B씨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는 행동도 벌였지만, 다행히 B씨는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여기에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협박성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나.

윤용성 기자 yo1404@

바로연

바른 만남 바른 결혼

초혼·재혼 무료상담 1644-5432 / 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73 대영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

광주·서구·국내·09·0005호